

신임을 두텁게 하는 비결

복송의 재상 여이간은 언제나 언행을 조심하여 관리들과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특히 황제인 인종의 신임을 크게 얻고 있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정사를 돌보지 못한 황제 인종은 병이 차츰 나아지고 정신이 들자 그동안 정국이 어떠했는가를 묻고자 하여 재상 여이간을 급히 불렀다.

그런데 재상 여이간은 황제의 부름을 받았는데도 급히 가기는커녕 평소보다도 오히려 더 느리게 발걸음을 옮겼다.

황제는 재상이 빨리 나타나지 않자 더욱 궁금해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다.

한참 뒤에야 황제 앞에 여이간이 나타나자 황제는 여전히 노기를 풀지 못하고 재상을 나무랐다.

“경은 어째서 이렇게 늦게야 오는 게요? 나는 정사가 궁금해서 급하게 불렀는데 ……”

그러자 여이간은 허리 굽혀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폐하께서 너무나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백성들이나 온 조정이 모두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폐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급하게 달려오면 모두들 폐하 옥체에 정말 변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놀랄 것입니다. 그것을 염려하여 일부러 천천히 온 것이니 용서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황제는 무릎을 치면서

“과연 그렇구려. 내 생각이 부족해서 그것도 모르고 화를 냈구려.”

여이간의 재치로 황제의 신임은 더욱 두터워졌다.